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종식되어야 한다

외세에 의해 국도가 분열되고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진지도 70년을 가까이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도 분열된 상처의 아픔을 가사내지 못하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도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압력존재이며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주되는 세력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은 그자체가 불법무도한 범죄행위이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국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 강점군이다. 실국은 세계지배야망의 실현을 위해 조선반도의 절반땅에 피묻은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다.

지난 조선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침략자, 약탈자로서

의 진면모를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철수문제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남조선에서 《유엔군》을 해체하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가 채택된것은 이를 보여 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 결의를 수십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정면 도전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피를 끓게 하는 로고리집단학살사건, 동두천녀인사발사건과 의정부녀인백기철사건, 윤금이사해사건, 두 녀중학생 살해사건 등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존엄을 유린한 범죄집단, 패륜아

들의 무리가 바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라는것을 알 수 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운상이며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화근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공화국이 내놓은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 역행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못된 언행과 군사적행위에 더욱더 매여달리고있다.

미국은 지금 세계여론을 오도하며 《북의 핵위협이 문제》라느니, 《아시아지역안보의 최대우려는 북》이라느니 뉘니 하면서 북과 남의 대결상태를 더욱 부추기고있으며 해마다 벌려온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술한 땅크, 장갑차집단과 비행대편대를 비

롯한 새로운 해, 공군력량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온밀히 전개시키고있다.

한편 맹전시기의 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데는 오늘날 미국의 처지를 놓고볼 때에도 당연한 일이다.

《국제헌법》임을 자처하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만을 일삼아서 미국은 오늘에 와서 막대한 군사비지출과 같이 값있는 경제체제의 후과로 하여 더는 헤어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들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남조선에 수많은 침략군을 주둔시켜놓고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으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일삼고있다. 이것은 결코 미국에게 리로운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에 침략자의 오명을 쓰고 쫓겨

나는것보다 미국이 임버릇처럼 외워대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스스로 철수하는것이 나올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은 역사의 흐름으로 보나 민족공동의 요구로 보나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도량단과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천천장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공화국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있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에물인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민족의 평화변영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리광성

정보원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

남조선의 참여련대, 진보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규탄 비상시국회의》가 1월 25일 서울에서 초발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 진보련대 집행위원장은 청와대가 부정선거를 계속하려는 목적됨에 그 관련자들을 감싸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정보원사건에 대한 특검으로 부정선거의 진상을 해결하지 않는 한 6월에 있게 되는 지방선거는 밀바진 독에 물붓기식 선거가 될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 정책실장은 부정선거의

내막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하면서 초발의 힘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연명하였다.

《정보원 내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내란음모 재판이 진행된 지난 기간 정보원이 내놓은 결정적증거라는 특음내용은 외곡과 거짓으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정보원의 사기극으로 하여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정보원사건에 대한 특검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공공부문 노동자들 선언 발표

남조선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대표들이 1월 23일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규탄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빚을 줄이고 경영을 개선한다고 떠들어대고있지만 그 진짜목적은 저들의 정책실패가 초래한 후과를 부정하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데 있다고

폭로하였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전기, 도로, 수도 등 각종 로금을 울림으로써 공공기관들의 빚을 국민들에게 들죄우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그 피해를 국민들이 입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당하게 될것

남조선당국은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재증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지지하여 재증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가 1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증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한 중대제안을 내놓은데 이어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 계층 인민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낸것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응단이라고 지적하였다.

재증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는 공화국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민족의 안전과 평화변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으로 열렬

히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남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방증상을 중단하고 군사적적대행위를 하지 말데 대한 제안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반도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고 군사적방법으로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의세와 결탁하여 벌리는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족의 머리우에 핵대난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온 민족을 참화속에 몰아넣을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 철재없이 벌어지는 속에서 어떻게 접촉과 대화의 평화화환경이 마련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은 평양강점에

목적을 둔 대규모전쟁연습이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억지주장을 그만두고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1992년에 조미고위급회담을 시작하면서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했던 전례도 있는것만큼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전체 재증조선인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공화국이 제시한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본사기자



총파업투쟁으로 철도로조탄압을 분쇄하자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각 지역본부들 투쟁 전개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각 지역본부가 1월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지역의 17개 주요철도역들에서 기자회견들을 가지고 철도로조탄압과 철도민영화중지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들에서 발언자들은 이러한 때 철도공사 사장이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가 자기를 출세시켜달라고 청탁하는 불을을 벌린데 대해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민영화를 반대하여 싸운 철도로조의 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월 25일의 총파업투쟁으로 철도로조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구속자들을 석방하며 민영화를 저지시킬것이라고 연명하였다.

또한 현 집권자와 함께 철도공사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의료민영화는 잘못된것이라고 주장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당소속 《국회》의원이 1월 19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부당성을 폭로하였다.

그는 개인의 돈벌이를 목

적으로 하는 의료민영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기어코 성사시키려고 하고있는데 대해 그는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문제는 이것이 한갓 그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는데 있다.

이번에 이자는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하는것을 NHK가 왼쪽이라고 말할수는 없다.》면서 자기의 나발이 일본당국의 공식립장임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시대의 거물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언론, 더구나 공영방송의 회장이라는자가 이렇게 과거 최악부정과 배상거부, 군국주의 부활에 발광하는 아베정권의 돌격대가 되어 일장에서 나팔을 불어대고있으니 과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굴러가고있는지 너무나 명백하다.

하기에 지금 세계 진보적인인들은 물론 《동맹》을 제창하는 미국까지도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과 과거 사부정행위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역사부정, 과거죄악에 대한 배상의 거부, 도발적인 군국주의부활책동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고립의 길,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성증삼

일본은 어디로 ...

제106호 사건》이라는 문서는 그에 대한 대표적실례이다.

1944년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감행된 일본군의 성노예범죄를 수룩한 이 문서에는 이 지역에 살고있던 네메란타너성들을 성노예로 만든것이 다음아닌 일본군이라는 일본록증장자의 실토가 그대로 적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K신임회장이 력사에 엄연히 기록된 성노예악을 부정하는것이야말로 인류의良心과 도덕에 대한 우롱이고 란폭한 도발인것이다.

한 력사적사실이라고 하면서 방송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반인륜적범죄를 부정하는외국인 력사관을 가진자가 한 나라의 공영방송 회장이 라니 한심한 일이다.

《731》이 적힌 비행기에 올라 웃고있던 일본수상의 반인륜적인 행위가 또다시 떠오른다.

이처럼 정신나간자들이 일본렬도를 어디로 끌고갈지 정말 넘려된다.

본사기자



성노예만행을 정당화하는 일본군우익세력의 망발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누가 범죄자인가?

지난 1월 19일 중국의 홍콩강성 할빈시에 자리잡고있는 할빈역에서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개관되었다. 력사에 잘 알려진바와 같이 안중근은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전대미문의 식민지통치를 강요하던 1909년 10월 26일 침략의 원흉이 히로부미(이동박문)를 처단한 조선민족이 자랑하는 반일애국렬사이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제가 그의 의로운 장거를 높이 평가하시어 반일에국렬사로 내세워주시고 그를 형상한 영화도 조각상영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어 민족의 가슴속에 애국자로 같이 간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 조선인민뿐아니라 중국인민에게도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침략의 피수 이도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렬사의 장거를 찬양하고 길이 전하려는 인류의 량심과 의지의 발현으로서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세워진것은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은 지금 력사에 침략의 원흉으로 오명을 남기기도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에 대해 일본의 초대수상을 죽인 《범죄자》라느니, 《레로분자》라느니 하면서 그를 심히 중상모독하며 《안중근의사기념관》이 세워진것에 대해 시비질해나섰다. 과거 일본의 침략자사를 전변부정하고 군국주의가 팔수에 찬 일본의 파렴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이러한 망동들은 지금 우리 민족은 물론 중국인민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이 안중근렬사를 가리켜 《범죄자》라고 떠들고 있지만 진짜범죄자로 력사에 략인책형자는 간대미문의 국가테로행위를 진행한 이도 히로부미와 같은 일본군국주의자이다.

이도 히로부미로 말하면 명치시기 일본군국주의우두머리로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며 세계평화의 극악한 파괴자이다. 1868년 명치정부수립후 일본에 내각제도를 창설하고 초대총리로 되어 명치정부의 전권을 띤 이 자는 1894년 조선에 침략무력을 출동시켜 갑오농민전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하고 부르조이개혁을 파란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이 자는 1905년 《투파대사》의 명목으로 조선에 기여들어 군사적공갈과 협박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고 그후 조선통

감부의 첫 통감으로 들고있던 야만적인 폭압통치와 수탈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에 대한 류례없는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의 기초를 수립하였다. 이처럼 이도 히로부미는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전체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수였기에 안중근은 할빈역에서 그에게 조선민족의 원한서린 총탄을 안기고 《조선만세!》를 소리높이 외쳤다.

이도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렬사의 장거는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조선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한 일제에 대한 쌍이교양인 분노의 폭발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안중근에 대해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준 의사로 길이 추억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특급전범자이며 조선과 아시아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이도 히로부미를 《민족적영웅》으로 추어올리면서 안중근에 국렬사를 모독증상하는것은 과거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재침의 길에 기여이 나서려는 범죄적목적의 산물이다.

이러한 일본에 온 세계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다.

어지러운 과거력사를 재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군국주의부활책동은 일본을 국제적고립속에 파멸로 더욱더 몰아갈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